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죽음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¹

이 원 희 · 이 영 자¹

Abstract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Death

Won Hee Lee, Ph.D., R.N. and Young Ja Lee, M.A., R.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the death.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327 adults who registered for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in Severance Hospice Center from 1996 through 1999. The 4-year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nstructed and revised by the authors. The questionnaire was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W.

Results : 1) Hospice volunteers were mostly female(93.9%) with an average age of 48 years. The majority(82.6%) of the participants were Protestant. 2) From the 4-years data over 90 percent of participants thought of death as a process of life and responded positively to these three items : 'Death is a temporary separation from family', 'I will die in peace', 'Faith in God results in a freedom from fear of death'. 3) Age were statistically relevant to the following items : 'I often read the obituaries in the newspaper', 'Dying is a tragedy', and 6 item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eligion : 'I rarely think of dying unexpectedly', 'Death is a temporary separation from family'. 'Dying is a tragedy', 'We have to do our best to prolong life by use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I feel comfortable thinking of death and dying', 'Faith in God results in a freedom from fear of death'. The finding that religiosity was related to perception of death is consistent with other reports. And 40~50 year old Protestant women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death than 20~30 year old women.

Conclusion : The findings indicated an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age and religiosity when we educate the hospice volunteers. And that will be a important basic-data to develop program for hospice volunteers.

Key Words : Hospice Volunteer, Perception of Dea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 적 용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그 외는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만연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 한 과학과 사회 변화로 인한 비인간화 문제, 노인 소 외, 생명 경시에 따른 임종자의 소홀 문제 등 가치관 과 윤리관의 변화가 가져온 혼란에 대한 일종의 대안 으로 호스피스 운동이 대두되었다.

호스피스란 인간 존중, 인간 이해 및 인도주의에 입 각하여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

이다. 총체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여러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것이며 인간의 부분 부분은 상호 관련성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각 부분과 과정보다 중요시하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 개체의 성장과 발달을 중요시하여 결국은 인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인 면의 합(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남은 생애를 끝까지 평안함과 안녕 되게 살며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문제, 환자 가족, 죽음과 동통 관리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동시에 중재해야 하므로 간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상담가, 목회자, 자원봉사자 등의 종합적인 접근(Team Approach)의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유자, 1995)

[1] 호스피스 간호를 위한 구성원의 사명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함으로써 환자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남은 가족은 사별 후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호스피스요원은 호스피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가족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와 죽음의 준비와 과정을 각자가 훈련을 받음으로써 먼저 자신이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의식을 분명히 해야한다. 임종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와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호스피스 요원 중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임종 환자에게 있어 일반 병원에서의 간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호스피스 정신을 유지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David R. Feibold, 1987)[2]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1)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지원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1) 호스피스

죽음을 6개월 남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경제적 및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남겨진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노유자 등, 1995)[3].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자, 1년 내에 의미 있는 중요한 상실 경험이 없는 자, 팀 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과 의사소통에 능력이 있는 자, 정서적인 청취기술과 다른 이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노유자, 1995)[4].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총 3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참석한 사람을 말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6년에서 1999년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석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연구에 응한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 대 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한 개 종합병원의 호

스피스 센터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465명 중 교육하기 전에 실시한 질문지에 응답한 327명의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으로써, 이효경(1985)이 개발한 도구[5]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항목별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자와 간호사, 사회사업가, 자원 봉사자 등 호스피스 전문 요원들의 내용 타당도를 거쳐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방법의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효경의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점수를 주어 택하게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 '아니오'의 명목 변수로 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 총 327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W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관한 문항의 빈도 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각 문항과의 관련성을 위해서는 χ^2 -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호스피스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남성(6.1%)에 비해 여성이 많으며 93.9%에 해당하였다. 이는 David(1987), Marsha(1988)[6] 및 이(1997)의[7] 연구 결과에서 각각 87.8, 83.2 및 94.4%와 같은 결과이다. 일반적인 자원 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대하여 연구한 박(1991)은[8] 남성 27.2%, 여성 72.8%를 보인다고 하여 자원 봉사활동에는 사회 활동이 많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22세에서 최고 74세로 평균 연령은 47.6세이다. 전체 대상자를 연령층으로 볼 때 20대가 6.4%, 30대가 12.9%, 40대가 35.9%, 50대가 37.4%, 60대가 6.4%, 70대가 0.9%였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전체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David(1987), Marsha(1988) 및 이(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40~50대는 자녀 출산, 양육, 가사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난 연령으로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60~70대에서는 현저한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David(1987)나 Marsha(1988)의 연구 결과에서는 60대까지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70대에 이르러 급격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상자가 속한 사회 문화적인 특성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문화에서의 노인의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박(1991)의 일반적인 자원 봉사자들의 연령적 특성을 20대가 76.8%로 두드러지게 많은 것과는 상이한 결과라 하겠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는 종교적 성향이 매우 높으며 그 중 기독교가 전체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David(198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나 Marsha(1988), 박(1991)[9] 및 이(1997)의 연구에서 천주교가 가장 많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종교적 특성과 자료수집을 실시한 기관의 종교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스피스 시행 기관이 기독교 관계 기관인 것과 본 자료 수집 기관 역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관임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의 제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 기독교계 종교인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기독교계 종교성이 높은 사람이 사랑의 실천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교육 수준별로는 응답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98년도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는데, 이(1997)의 연구 결과와 같이 중졸 이하가 5.4%, 고졸이 31.2%, 대졸이 54.8%로 고졸이상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죽음 인식 각 문항에 대한 분석

죽음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는 총 12문항으로 죽음에 관한 태도 3문항, 임종을 앞둔 환자 및 환자 고통에 관한 3문항, 죽음 의식에 관한 1문항, 사형제도에 관한 1문항 그리고 인생관, 종교관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빈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죽음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돌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중에서 188명(57.6%)였으며, 사망 기사를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20명(67.5%)으로 많았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63명(80.4%)으로 이는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자연스런 순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김

Table 2. Frequency of Each Item in Questionnaire

Item		Total (N=327)
1. I rarely think of dying unexpectedly	YES	138(42.4)
	NO	188(57.6)
	no answer	0
2. I often read obituaries in the newspaper	YES	220(67.5)
	NO	99(30.4)
	no answer	7(2.1)
3. Death is temporary separation from family	YES	276(84.7)
	NO	45(13.8)
	no answer	6(1.8)
4. We expect prolonged life using advanced medical technology	YES	209(63.9)
	NO	112(34.3)
	no answer	6(1.8)
5. I rarely think of death.	YES	62(19.0)
	NO	263(80.4)
	no answer	2(0.6)
6. Death penalty is inhumane practice.	YES	257(78.6)
	NO	59(18.0)
	no answer	8(2.4)
7. Dying is a tragedy.	YES	124(37.9)
	NO	200(61.2)
	no answer	3(0.9)
8. I will die in peace.	YES	299(91.5)
	NO	22(6.7)
	no answer	6(1.8)
9. We have to do our best to prolong life using modern medical-technology	YES	206(63.0)
	NO	115(35.2)
	no answer	6(1.8)
10. I feel uncomfortable thinking of death and dying.	YES	62(19.0)
	NO	263(80.4)
	no answer	2(0.6)
11. I am afraid of encountering dying person.	YES	74(22.6)
	NO	246(75.3)
	no answer	7(2.1)
12. Faith in God results in a freedom from fear of death.	YES	312(95.4)
	NO	11(3.4)
	no answer	4(1.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N=327)

Characteristics	N(%)
Gender	Female 307(93.9)
	Male 20(6.1)
Age	21 ~ 29 21(6.4)
	30 ~ 39 42(12.9)
	40 ~ 49 117(35.8)
	50 ~ 59 123(37.6)
	60 ~ 69 21(6.4)
	70 ~ 79 3(0.9)
Religion	Protestant 270(82.6)
	Catholic 25(7.7)
	Buddhist 10(3.1)
	Other 6(1.8)
	No Answer 16(4.9)

(1990)[10]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죽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대상자의 52.0%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한다고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은 가족과의 일시적인 헤어짐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76명(84.7%)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박(1991)[9]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 의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위협, 염려 등의 점수가 낮게 나오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초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성을 보였다.

임종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80.4%가 ‘죽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5.3%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1.2%의 대상자가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1991)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대상자 중 299명(91.5%)이 죽을 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78.6%가 비인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3.9%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연장을 기대하였으며, 60.3%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 연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이면서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현대 의학의 힘으로써 오래 살고자 하는 삶에

Table 3. Analysis of Item and Gender, Age, Religion(N=327)

Item	Gender	Age	Religion
	X ² value(P)	X ² value(P)	X ² value(P)
1. I rarely think of dying unexpectedly	0.1(0.913)	13.7(0.184)	18.8(0.016)
2. I often read obituaries in the newspaper	0.6(0.740)	19.1(0.039)	4.9(0.768)
3. Death is a temporary separation from family	3.61(0.164)	14.9(0.13)	41.2(0.000)
4. We expect prolonged life by means of advanced medical technology	1.3(0.508)	13.6(0.191)	7.0(0.526)
5. I rarely think of death	2.9(0.235)	10.6(0.389)	3.0(0.934)
6. Death penalty is inhumane practice	1.3(0.519)	13.7(0.422)	9.1(0.327)
7. Dying is a tragedy	3.2(0.195)	25.2(0.005)	23.4(0.003)
8. I will die in peace	0.7(0.694)	12.9(0.227)	13.7(0.088)
9. We have to do our best to prolong survival using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0.7(0.694)	7.8(0.639)	21.6(0.006)
10. I feel uncomfortable thinking of death and dying	0.3(0.832)	15.0(0.129)	20.5(0.008)
11. I am afraid of encountering dying person	1.7(0.412)	12.4(0.257)	12.9(0.114)
12. Faith in God results in a freedom from fear of death	1.0(0.598)	11.1(0.350)	27.9(0.000)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상자 95.4%가 신앙심이 깊다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종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박(1991)과 김 외(1998)의[11] 연구에서 자원 봉사자의 96.3%가 높은 종교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하겠다.

3. 죽음에 대한 인식의 문항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성 차이와 각 문항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었다. 성별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 연령과의 관련성

연령과의 관련성에서는 2개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망기사를 자주 읽는다'의 문항에서 즉, 40~50대의 중년기의 경우 '그렇다'에 76.21%가 20~30대의 16.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는 활동기인 20~30대보다 여유롭고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40~50대에서 죽음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은 비극이다'의 문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가 40~50대의 경우 74.3%, 20~30대의 대상자에서는 19.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층이 젊은 층보다 죽음에 대하여 더 민감함을 보여주며 죽음을 더욱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와의 관련성

종교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기독교 대상자의 81.2%가 '나는 내가 교통사고 같은 돌발적인 사고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천주교 9.6%, 불교 4.8%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다'에서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는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개연성에 대하여 가깝게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이란 가족으로부터 일시적인 헤어짐이라고 생각한다'의 항목에서는 기독교, 천주교의 94.1%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불교 및 기타 종교의 2.9%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은 비극이다' 항목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92.9%가 '그렇지 않다'에서 불교와 기타 종교의 3.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최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의 항목에서는 기독교, 천주교의 경우 91.2%가 '그렇다'에서 불교와 기타 종교의 5.8%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나로서는 죽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다'의 항목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91.9%가 '그렇지 않다'에서 불교와 기타 종교의 3.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기독교, 천주교의 대상자의 91.6%가 '신앙심이 깊다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 '그렇다'에 응답한 반면 불교 및 기타 종교의 대상자는 5.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기독교인이 죽음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사후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1997)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았다는 결과와 김 외(1998)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높은 군이 종교성이 낮은 군보다 긍정적인 죽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성을 보인다. 또한 김 외(1999)[12]의 연구에서 죽음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종교성과 연령이라고 한 것과 Thorson과 Powell(1990)[13]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연령과 종교성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96년에서 99년도 사이에 호스피스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327명이며 여성이 307명으로 93.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2세에서 74세로 평균 연령은 48세이었고 40(35.9%)~50대(37.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 대상자의 82.6%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을 나타냈다.

(2)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인도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기대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95.4%에서 신앙심이 깊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죽음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연령,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층이 젊은 층보다 죽음에 더 민감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4)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대상자가 기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 비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강한 종교성을 보였다.

2. 제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병원의 호스피

스 교육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교적 성향이 기독교와 가톨릭에 치중된 결과를 보이므로 비기독교적 배경의 성인과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2)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죽음 인식 및 태도가 말기 환자들을 간호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자원 봉사자들에게 행해지는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봉사활동 경력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자원봉사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방법: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실시된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대상자 남녀 성인 465명 중 교육하기 전에 실시한 질문에 응답한 327명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대상자는 총 327명이며 여성이 307명으로 93.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2세에서 74세로 평균 연령은 48세이었고 40(35.9%)~50대(37.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 대상자의 82.6%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을 나타냈다.

2)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인도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기대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95.4%에서 신앙심이 깊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죽음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연령,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층이 젊은 층보다 죽음에 더 민감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4)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대상자가 기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 비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강한 종교성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5;122.
2. David R. Seibold, Shron M. Rossi, Carol R. Berteotti, Shron L. Soprych, Lucas P. McQuillan, Volunteer Involvement in a Hospice Care Program, American Journal of Hospice Care, 1987; vol. 4, no.2, 43-55.
3.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5;122.
4.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5;158-159.
5. 이효경.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6. Marsha Magnusen Hushes, Perceptions and Services of Hospice Volunteers, American Journal of Hospice care, 1988;vol. 5, no. 3, 38-47 .
7. 이정애.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8. 박하숙. 한국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1.
9. 박석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1.
10. 김정희. 죽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료인의 태도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11. 김분한 외,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I, 대한간호, 1998;37(1):98-106.
12. 김분한 등,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II, 대한간호, 1999;29(3):576-584.
13. Thorson JA, Powell FC. Meaning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46(4):379-387.